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 제346회국회 제 5 호 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정기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16년11월10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2017년도 예산안 등 재정 현황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상정된 안건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2017년도 예산안 등 재정 현황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1 가. 문화체육관광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관련, 2017년도 예산안 등 재정 현황에 대 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2018평창동 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및 강원도에서 참석하고 있 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이해찬 위원님과 이찬열 위원님의 소속 교섭단체 변동이 있었고 그에 따라 좌석도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찬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찬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오늘 회의의 보고 기관인 문화 체육관광부의 조윤선 장관은 제반 사정으로 참석 하지 못하였고 업무 소관인 제2차관도 공석인 관 계로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배석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금 송언석 차관이 배석하고 있는데 오늘 예결위 회의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와 상의를 하였는 데, 차관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과 이번 동계 올림픽 예산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예결위 회의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협조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강원도는 노재수 동계올림픽본 부장,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는 여형구 사무총장 이 각각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2017년도 예산안 등 재정 현황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10시07분)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준비 관련, 2017년도 예산 안 등 재정 현황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를 상정합 니다.

보고 듣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송언석 차 관께서 예결위에 참석해야 하므로 먼저 인사말씀 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 대한 말씀과 또 이번 동계올림픽 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해 주실 지, 협조해 주실지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존경하는 황영철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재정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 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 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 동계스포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주요 인프라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내년에 7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사전 붐을 조성하고 올림픽을 문화, 한류 조성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올림픽 예산도 70억에서 291억 원으로 대폭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테스트 이벤트 개최 지원, 모듈러 숙박시설 설 치 등 각 부처에서 평창올림픽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회 개최국으로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코치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적극 확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서 주무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 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먼저이석하게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저를 대신해서 답변드릴 기획재정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철 차관님, 조금 시간이 허락하시면 3당 간사님들 말씀만 청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철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간사님들께서, 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님께서 꼭 차관님 계신 데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 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 ○**위원장 황영철** 먼저 염동열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열 위원 저희들이 몇 번 동계특위나 교육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올림픽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재부차관님이 참석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과잉투자는 여러 가지 수치를 보나 13 조 중에서 SOC에 다 투입을 하고 국가 예산은 1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한 1 조 2000억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국가 적 이벤트고 세계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의 지원이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원활하지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에 총력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0이라면 거기에서 플러스 1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10이 11의 효과, 20배의 효과 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1년 남 은 기간에 예산을 줄여 봐야 얼마만큼 줄이겠습 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올림픽이 세계적인 행사이 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실추된—메르스 또 세월호 또 현재 최순실 게이트 같은—이런 국가 적 이미지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 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올림픽을 바라봤던 생각을 좀 달리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러 스 폰서를 위한 경영평가에 대한 방지 대책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도시 미관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부족 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장식품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한국의 산업, 한국의 문화관광, 한국의 경 쟁력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우뚝 설 수 있게끔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마인 드에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점으로 동계올림 픽을 지켜보고 지원하고 세밀하게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께서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계올림픽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 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많 은 예산을 이미 투입했는데 투입한 상태에서 조 금 더 해야만, 마무리를 잘 해야만 그만큼 명품 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특히 평창동계올 림픽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특별히 문화올림픽이 나 홍보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올림픽이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의 시국과 관련 없이 기획재정부에서도 계속 관 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국민의당 이동섭 간사님,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우리가 5일 날 한일협력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을 모시고 일본 갔습니다. 일본 가서 우리가 일부러 수상한 테 의뢰해 가지고 2020년 일본 하계올림픽 관련 해서 체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체육청 방문해서 체육청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문부과학성 대신을 만나서 그 관련 업무에 대해 파악을 좀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8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했어요. 계획을 수립했다고요. 8년 전부터 준비했다고요, 차관님.

우리 한국은 준비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우리가 동계올림 픽 유치를 두 번 실패하고 난 뒤에 해 가지고 굉 장히 오랜 기간 해 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8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거 기는 올림픽을 위해서 스포츠청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아베 수상을 비롯한 각료들이 올림픽 의 중요성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 리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 니다.

8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스포츠청을 만들었 고요. 스포츠청장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느냐 하 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거 기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해 가지고 하나하나 준 비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 산은 바로 2배, 작년 예산보다 2배를 올려서 준 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 림픽 관련 기사를 실어서 계몽운동을 하고 전 국 민적으로 2020년 올림픽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서 답답하고 '이것 분명히 실패할 거다' 저는 그 런 예감이 들어요. 이 정부에서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대충 한 다면 분명히 이건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포츠청도 좀 만들고, 예산 문 제도 2배로 올리고, 인력도 전문가 중심으로, 아 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추진하면 최 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이 꼭 성공할 수 있도 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차관님께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 고, 제대로 쓸 때는 써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렇 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철 차관님, 답변 겸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존경하는 염동열·송기헌·이동섭, 세 분 간사 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이 미지를 제고한다든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든 지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는 재정 측면에서도 저희들 이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 왔습니 다. 문화올림픽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ICT 올림픽이라든지 평창올림픽특구 그다음에 도시경 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그동안 에도 지원을 해 왔고 2017년 예산안에도 많은 예 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새롭게 제기 되는, 앞서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 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면 재정 측면 에서 필요한 사항들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하고도 논 의를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가 18대부터 죽 있어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때부터 계속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20대 국회 들어서 달라진 것은 여야를 떠나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여야 의원님들이모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애를 써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아쉽게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려할 부분들이 말끔하게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차관님께서 더 살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배석한 조직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히 노력해야 될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트렸어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예.

○이동섭 위원 이찬열 위원님도 같이 갔는데, 일부러 우리가 체육청을 방문한 겁니다. 일정이 없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이찬열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그런데 마지막에 문무과학성 대신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분 다.

'2020년 일본 올림픽의 성공은 패럴림픽에 달 렸다. 패럴림픽이 성공해야만 완전한 성공이다' 그 말씀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좀.....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영철** 제가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나중에 하고요. 제가 자료를 넘겨주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드릴게요.

○위원장 황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올림픽 관련 예산 잘 챙겨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먼저 이석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때까지 정 부와 국회의 힘을 다 합쳐 가지고, 온 국민이 합 심해서 성공하는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님, 나와 계시잖아요?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님, 나오 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황영철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철규 위원 예.

○**위원장 황영철** 이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지난번에도, 회의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오늘도 문체부 외에는 아침에 회의 때까 지 보고서가 의원실로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조직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보고 내용을 알아야지 위원들이 당부하거나 지적할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책상 앞에다가 놔 놓으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소한도 전일 오후 일과 중에는 보고서가 의원실로 도착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철 지금 행정실에서 얘기 듣기로 는 오늘 보고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만 보고 기 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

다음부터는 배석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테,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 주시기 전에 사전 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체육정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정책 실장 김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평창올림픽 준비 를 위해 준비기관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창올림픽 전반적인 대회 재정과 2017년도 범부처 올림픽 관련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개요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원장 황영철 실장님, 우리 계속 보고받았던 거니까 그것 말고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 으로 좀 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재정 및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재정입니다.

올림픽 재정은 크게 경기장과 개·폐회식장, 선수촌 등 대회 필수시설에 2.4조 원, 조직위 운 영재정에 2.3조 원, 대회 교통망 9조 원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 대회 재정은 13조 7000 억 원 상당으로 대회 교통망을 제외한 대회 개최 에 소요되는 예산은 4조 7000억 원 수준입니다.

부담 주체 측면에서는 전체 13조 7000억 원 중 국비가 약 7.7조, 강원도 및 개최 시군에서 4500 억 원, 즉 3% 상당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 정부안입니다.

대회 시설 예산, 조직위에 직접 교부하는 대회 개최 지원 예산, 그리고 각 부처에서 올림픽 지 원을 위해 자체 편성한 사업 예산 순서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대회 시설 중 교통망은 국토부에서, 경기 장 등 필수시설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대회 시설 관련 예산 투입의 마지막 해 입니다. 강원도 및 문체부 요구 사업비 대부분이 정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 대회 시설 비 지원이 2305억 원이며, 철도·고속도로·국도 등 교통망 관련 예산이 5006억 원입니다.

대회 시설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 록 국토부 및 개최 도시 강원도와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창올림픽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조직위에 직접 교부될 예정인 예산은 323억 원입 니다.

문체부의 패럴림픽 적립금은 대회 유치 시 비 드 파일(Bid file)에 명시된 공약사항입니다. 총 국고 173억 원이 지원되며, 17년에는 연차별 스 케줄에 따라서 34억 원을 조직위에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외에도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포함한 대 회 개최 지원 사업은 조직위 차원에서 체육기금 반영을 요청한 건으로 정부안에 대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대회 기간 선수촌 병원 및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대 회 시설 및 대회 개최 지원 관련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각 부처의 올림픽 지원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조직위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조 직위가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 다마는 평창올림픽 시기에 맞춰서 기존의 부처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쪽의 사업들은 대회 개최에 직접 소요되는 예 산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올림픽, ICT올림픽, 환 경올림픽 등 대회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강원도조직위, 민간 등 다양한 기관과 함 께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현재 총 11개 부처 956억 원이 조직위 및 강원 도의 요청에 따라 17년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습 니다.

정부안 원안 통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반영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재원 체육정책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수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님 나오 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강원도 동계 올림픽본부장 노재수입니다.

이렇게 보고 기회를 만들어 주신 황영철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 현 안,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까지 강원도에 투자된 올림픽 관련 예산 은 3조 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조 335억 원, 지방비가 1조 97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투자는 경기장과 도로 건설 그리고 경관정비, 특구 관광개발, 홍보사업 등에 대부분 투자가 되었으며, 지방비는 알펜시아 단지 조성에 1조 2000억 원을 비롯해 스키점프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의 선투자에 2700억 원, 신설 경기장 등 시설 부담분으로 51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강원도에 투자되는 SOC 국비사업은 원주-강릉 간 철도, 동서고속도로, 제 2영동고속도로, 기타 국도 건설 등에 11조 5319 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18%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공 적인 올림픽 개최를 제1의 도정 과제로 삶고 전 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1년 3개월여 앞두고 경기장 시설 등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나 올림픽 붐 조성이나 국내외 홍보, 베뉴 도시 환경개선 사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추가 6개 사업에 대한 국비 1200억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건의드립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 오른 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조직위원회 사무총 장 여형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창동 계올림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위원회 주요 현안인 균형 재정 달성과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4차 대회 재정계획 수립 및 균형재정 달성입니다.

2011년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구성 이후에 IOC 의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 세 차례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제4차 대회 재정계획(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올림픽 유치 신청 시 대회 운영 재정규모를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조 2000억으로 IOC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번 제4차 대회 재정계획(안)수립 결과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조직위전환, 빅 에어(Big Air)등 대회 종목 수 확대 등으로 약 6000억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출 규모를 현실화해서 2조 8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 규모는 2조 4000억 원에 불과해서 균형재정 달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균형재정 달성 방안입니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지출사 업은 재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집 행하고, 장비와 물자 등은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등 지출 절감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십 목표액 초과달성, IOC 지원 확대 등 조직위 차원에서의 자구적인 노력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 성격의 사업 경우 2017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부처 19개 사업에 대해서 664억이 현재 반 영되어 있고, 2개 부처 4개 사업 312억, 문체부의 패럴림픽 국제신호제작 비용과 대회 기간 문화프 로그램 운영비 또 성화 봉송 사업비 그리고 복지 부의 선수촌 병원 장비 설치 · 운영비 등은 미반 영되어서 반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무여건이 양호한 공공기관을 중심으 로 해서 올림픽 후원 또는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7년도 정부예산에 올림픽 관련 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 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 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쪽입니다.

올림픽 관련 2017년도 각 부처 예산안 내역과 4쪽에 있는 공공기관 후원참여 요청 내역은 유인 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평창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 필요사항은 총 4건입니다.

이 중에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레이트카드 (Rate Card) 차량 유상 재임대 및 운전자 알선 허용,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수수료 면제로 2건이 고, 비재정 사항은 암표 판매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 대회운영 관계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등 2건입니다.

먼저 레이트카드 차량의 유상 재임대 및 알선 허용입니다.

대회 참가자의 원활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 이외에 별도의 차량을 필요로 하는 대회 참가자 들에게 렌트차량을 유상으로 재임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협약 미가입 국가 6개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대회 참가자에 대한 운전자 알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트 차량의 유상 재임대와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58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6쪽, 둘째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수수료 면제입 니다.

정부는 올림픽대회 유치 당시에 선수단과 IOC, IPC, 미디어, 방송사 등의 무전기용 주파수 무료 사용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파수 사용 관련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무료 사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에 정부의 약속 이행 과 함께 약 2억 원의 대회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 습니다.

셋째, 암표 판매 금지 및 제재를 위한 근거 마 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입장권 판매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오프라인상의 암 표 매매만 금지하고 있어서 온라인상의 암표 매 매 규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 인상의 암표 판매 금지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회운영 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입니다.

경기장 등 대회 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 한 신원 확인은 올림픽의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사항으로서 과거 모든 역대 대회에서 실시한 바 있고 IOC 역시 대회관계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 회를 안전을 위한 필수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 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형실효법에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려면 법 률상 근거가 필요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 특별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조회대상이 너무 많 고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번 조회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해 서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 중 레이트카드 차량 유상 재임대와 운전자 알선 허용, 암표 판매 금지 및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은 지난 11월 8일 염동열 의 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표발의해 주 셨고,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수수료 면제 관련 개 정 사항은 고용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 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 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습 니다마는 저희가 자체 점검 결과 어떠한 외부 압 력이나 청탁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치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

고 흔들림 없이 성공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치의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사실인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 각도 또 드네요.

일단 위원님들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찬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문체부장관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안 듣고를 떠나 가지고 이 상황에서 문체부 주무장관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 다.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안 나온 건지, 왜 이 자리에……

모든 전 국민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관심이, 그나마 우리가 바라는 관심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빠져 가지고 특별위원회회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고, 여기 나오기 싫으면 문체부장관 그만두라고 그래 요. 뭐 하러 장관 이름 달고, 회의 안 나오고 그 러는 장관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아주 배제시켜 버리자고요,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아마도 상임위인 교문위와 또 아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현안질의가 준비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사실 저도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우리 여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또 정부에서 이 예산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가 사실은 오늘 우리 특위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최순실 사 태와 관련되어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여러 가 지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혹스 럽고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취지에 맞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황영철** 최명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 니다.

○최명길 위원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윤선 장관은 무슨 이유를 들어서 불참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했으며, 위원장께서는 어떤 논리로 그것을 양 해를 해 주셨는지는 반드시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와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안 나온 거며, 강원도는 왜 국장이 나온 건지도 한꺼번에 좀 밝혀 주시고요.

사무총장께서 자체조사 결과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질의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아무리 주관 상임위원회 가 교문위가 있고 예결위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 문에, 사실은 이 특위의 명칭이 평창올림픽지원특 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자고 여기 온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는데, 이 위원 회를 열지 않았으면 모를까 열었으면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평창특위를 열었는데 무슨 얘기 가 오가는지는 나중에 후일 기록이라도 볼 것 아 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떤 논리로 불참해도 되겠느냐고 위원장께 양해를 구했으며, 어떤 논리로 위 원장께서는 양해를 해 주신 건지 여기서는 분명 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저보고 밝히라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가 재정 관련된 회의였기 때

문에 회의 취지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관과 조직위원장 또 도지사의 출석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런 차원에서 참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고, 그 리고 다음 회의 때는 저도 장관과 도지사와 조직 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장관 같 은 경우도 새로 임명되는 이런 과정도 있다 보니 까 여러 가지 구조상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제가 좀……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광화문 광장의 세 종문화회관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그 맞은편 의 KT빌딩에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세계 최초, 평창올림픽……' 그런 슬로건이 있더 라고요.

두 가지 장면이 오버랩 됐는데, 20만 명이 촛 불을 들고 있는 장면과……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이거 평창 올림픽 구호 맞지요? 맞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촛불의 열정하고 그 맞은편에 걸 려 있는 저 'Passion. Connected.'가 정말 제발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가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져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평창올림픽 특별결의안 통과시킬 때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이거 찬성해도 되는 거 냐? 찬성한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정말 너무 찝 찝하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 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다고 한다 면, 혹시 행여 아직도 무슨 그것과 관련된 정당 하지 못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다 꺼내 놓고 그것은 걷어 내고 실제로 강원도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제안했던 부 분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정말 두 가지의 열정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이나 기재부 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 있는 위치 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 주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박

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 인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동계올림픽에 대통령이 없을 수 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국민적으로 용인하 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서 정말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을 만 들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재부 부총리, 문체부장관, 조직위원장 나와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이 부분 에 대해서 투명하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민병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 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부득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지금까 지의 상황들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 하시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음 회의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장관과 기재부 부총리와 조 직위원장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해서 어려운 점들 은 어려운 대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걷어 내고 다 함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그런 회의 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은 5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다 같이 5분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영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 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게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도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가…… 강릉 앞바다 물을 다 먹여도 시원찮 을 그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만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온 마음에 상처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순실 이 사람 청탁을 안 들어줘 가지고 조양호 동계올림픽조직위원 장이 물러나게 됐다, 그때 보니까 조양호 위원장 얼굴이 불만이 가득히 쌓인 얼굴입니다. 이게 아주 평창동계올림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주도 지원예산이 290억 정도인데 97억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형구 총장님, 물론 총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얘기하실 수 없는 것 제가 압니다.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마세요. 뒤늦게 들어가셔가지고 힘든 점 많으실 텐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중일 올림픽 연속개최 계획이 교류사업 5억, K-pop 행사 관련 홍보비 및 네트워킹 행사 24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대표 융복합 공연 개최 18억원, 빙판 디스플레이 운영 및 갈라쇼 개최 20억원, 해외 주요도시 순회 한국예술특집행사 30억원, 일단 의심되는 게 이겁니다. 290억 중에 97억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의심을 하고 있어요.

총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민 예산으로 참 축제에 축제를 거듭하는 이런 행사로 거듭나야 될 평창동계올림픽이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아주 시궁창으로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될지가 걱정이에요, 제대로 개최나 할지.

거기다가 주무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도 않고, 혹시 그 사람들도 이런 데 관련된 것 아닙니까? 주무 차관은 공석이 되고, 이 사람들 얼마나 해먹어야 속이 편할 거야.

동계올림픽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제가 해외에 가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홍보가 대단합니다. 제가 배지 오늘 가져오려고 책상에 꺼내놨다가 지금 못 가지고 왔습니다.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같이하는 것 2개로 묶고, 우리 평창올림픽은 하나짜리 조그만 것 하나 있고, 이것을 들고 오려다가 깜빡 잊고 못 갖고 왔어요.

국회의원들 지금 의원외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배지 만드는 데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한 50개, 100개씩 해서 의원실로 보내세 요, 공문 하나 써 가지고. 나갈 때 만나는 분들한 테 무조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다 해먹는 거야, 지금. 나라 꼴이 말이 되냐고요.

저는 국제적인 행사는 정말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리우올림픽에서는 뭘 했나 보니까 부스 차려 놓고 여기 빵산도 보이는데, 아베가 한 것 다들 보셨잖아요.

하계올림픽에는 동계올림픽 홍보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빼먹으려고 다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쓸 돈이 없는 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계올림픽에 가서 동계올림픽 시원한 것 좀 홍보해 보시라고요. 또 저는 직접 못 봤는데 뮤직비디오 홍보 영상 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뮤직비디오냐고……

이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 시간이 다 돼 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 렀던 것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운영 만 책임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 지 조직위에 직접 얘기된 부분들은 저희가 불미 스러운 일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조직위 운영을 하면서 문 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예산 사업들은 저희 조직위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홍보가 매우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이 부분은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찬열 위원** 특히 문체부하고 조직위는 예산 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최순실이 지금 어 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해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문체부 차원에서도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제 기해 주신 모든 문제에 관해서 현재 TF팀을 구 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 적된 강도가 심한 부분은 예산의 집행 중지라든 지 환수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고 있고, 나중에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 위원** 그것 조심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 잘못되면 또 직업 잃어버릴 수 있어요.
- **○위원장 황영철** 이찬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 ○**이찬열 위원** 조심해서 하셔야지.
-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 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삼척의 이철규 위 원입니다.

우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이시지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철규 위원 안일환 심의관님, 지난 7일 날 국회 기재위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최순실 예산에 대한 자료 정리가 다 되어 간다고 답변을 했고 요, 문체부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 습니다.

기재부에서 파악한 최순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또한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그때 말씀 드린 것은 문체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철규 위원 그런데 자료 정리가 다 되어 간 다라고 답변을 했기에 마치 금명간 확인될 것으 로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조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지금 그 의 혹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

- 분이기 때문에 기재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부처와 상임위에서……
- ○**이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부 에서 하고 있나요?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 습니다.
- **○이철규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심도 있 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도....
- ○**이철규 위원** 금명간 안 나온다, 이런 얘기지 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당장 정확한 금액까지는 그렇습니다.
- ○**이철규 위원** 정책실장님 지금 문화라든가 체 육 쪽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합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엄중 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규 위원** 체육부 또 문화부 쪽의 관계 공 무원들은 아주 깊은 반성과 그다음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객관적으로 드 러난 사실에만 의하더라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주도로 지난해 6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창 립하자마자 1년 사이에 6억 7000만 원이나 예산 을 받아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나요? 다른 사람의 경우는 불가능하지요?

자, 이런 예산이 잘못 집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할 동계올림 픽의 예산 지원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렇기에 주무 부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런 수준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올림픽 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에 대해서 국민들 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저희가 11일 1일 자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했고 요. 거기서 문제의 징후를 발견해서 11월 3일부 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 체부가 만든 TF에서는 이 사업의 출발점에 있어 서는 상당수 동계올림픽 스타 출신들이 후배 영 재들을 키우는 좋은 취지로 보고 지원을 했습니 다만 돌이켜 보면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TF팀에서 정했고요. 금년 예산 중에서도 잘 들여다봐서……

○**이철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 식의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게이트로 인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을 빚을까걱정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특위도 개최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부처의 또는 조직위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는 데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자체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원만히 치러지기 위해서는 120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파견 나간 본부장, 이 12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 여야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계시고요, 또 대표님들을 만나고 계시고, 사업 내용에 대한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안행위가 지난번에 열렸을 때 공중화장실 개선 부분은당초 정부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다행히 30억원 중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문위에서도 문화올림픽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1분만 쓰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무총장님,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보니까 조양호 전 위원장께서 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44명의 계열사 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글을 보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 44명은 조직위가 인건비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 44명은 민간 전 문직 파견으로 해서 한진그룹에서 하고요, 저희 는 그 파견수당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 위원장은 중간에 어떤 경위로 퇴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 도 하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데려간 44 명을 끝까지 조직위에 남겨 두고 이 올림픽이 성 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라든가 조직위의 책임 자들은 이러한 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맡은 바 위치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올림픽이 성공적 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를 당부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각별히 명심하겠습 니다.

O이철규 위원 아침에 이 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정부의 또는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복무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움을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서를 좀 번갈아서 하기 위해서 고 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 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 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원래 우리가 평창 올림픽지원특위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 점검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서로 맞대고 고민하고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최순실의 이런 그림자 때문에 장관도 자 리를 하지 않고 또 차관도 사퇴했고, 그런 속에 서 위원님들 몇 분은 그런 데 대한 모두발언을 하시고 퇴장하시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 상황만 봐도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이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걱정이 많던 차에 우리가 더 큰 상황을 맞아 가지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수뇌, 선장들이 다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이 없더라도 실장님이 오늘 나오셨으니

까 이하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 가지고 준 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문체부가 최순실·차은택 의혹받은 사 업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감축 또는 폐지하겠다 고 발표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 습니다.

○고용진 위원 문제성 사업 예산이 약 3570억 정도 되는데 문체부가 892억 감액하겠다고 자료 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고용진 위원 이 규모가 적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문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논 의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특위에서는 그동안 평 창동계올림픽 예산 부족 문제가 최순실 게이트에 도 또 이렇게 연루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 식하고, 이번 자체 감액 예산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준비하거나?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교문위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 ○고용진 위원 상의만 하고 있지 확보되거나 성 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아직 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고용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에 감사 원 감사 결과 주요 내용도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 약하면 감사원이 10개 사업을 검토했는데 사업부 서가 예산 산출기준에 따라 제출한 예산 요구액 에 비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많이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원이 검토해서 부족하다고 한 예산 이 10개 사업만 379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만 봐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노 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확보 안 해도 괜찮아요? 잘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저희는 알뜰하게 그러나 알차게 치른다는 큰 정 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 기해 주시는 사항들이 재정 당국과 또 긴밀한 협 의를 통해서 조직위 사업과 강원도 사업을 저희 들이 좀 불가피한 예산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삼자가 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게 정말 각별히, 시급히 대 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당장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 한 검토가 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례를 들면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 방송을 국제에 송출하기 위한 예산 190억을 방송통신발 전기금 재원으로 신청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반려 하고, 문체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국 회에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 어 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문체부에 서도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그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혹시 저희가 삭감당한 부분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든가 하는 부 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할 생각입니 다.
- ○**고용진 위원** 올림픽 개최도시 계약서상에 올 림픽 주관방송사가 패럴림픽 주관방송사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발기금이든 국민체육기 금이든 반드시 해 놨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체부나 조 직위나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회식이나 폐회식 등을 포함해서 패럴림픽 상 황을 중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 세계 패럴림픽 관중들에게 대한민국 이미지가 어떻게 비쳐지겠 습니까?

그래서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 체부가 자진 삭감한 최순실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든지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 게 하겠습니다.
- ○**고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철** 고용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고향이 강원도 평창 올림픽 동네 에 있는 김규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 다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액자 한번 봐 주세요. 보이세요? 저것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일본 동경올림픽 계획표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평창올림픽 계획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무총장님, 저런 계획표, 간트 차트(Gantt Chart)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올림픽 운영에 대한, 대회 운영에 대한 전체 로드맵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로드맵이 뭐예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전체 일정 계획이라 든지……

○**김규환 위원** 거기 하나하나 기록 다 합니까, 매일같이 일의 진행 상황?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저희가 계속 주 간 단위로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 니다.

○김규환 위원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놔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각 분야별로 다 저 회가 체크리스트 갖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 내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김규환 위원 제가 일본 가서 이동섭 위원님하고 같이 봤어요. 내가 자료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것 다 드릴게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김규환 위원 이동섭 위원님이 저보고 한번 보여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여 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나카소네 수상을 개인적으로 알 기 때문에 그분께 부탁하자 그래서 거기 체육청 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저런 상황 보드판을 보여 주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서 화장실 찾아가는 것 처럼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도로까지, 조 그만 간판까지, 학생들 교과서에 넣는 것까지, 어 느 업체가 무엇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얼마인 것 까지 쫙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재정 담당하는 부서하고 매일 얘기한대 요. 매일 기록이 달라지고, 빨간 글씨, 파란 글씨, 다른 글씨로 표시를 다 다시 합니다. 모자라는 것, 더한 것 기록을 다 해요. 무슨 예산을 깎아 요? 거기서는요……

이동섭 위원님, 1년마다 얼마씩 올린다고 그랬어요? 100%씩 올린다고 그랬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진정한 올림픽의, 진정한 올림픽의……

한 번 더 합니다. 진정한 올림픽의 성공은 패 럴이라고 했어요. 패럴림픽.

전 세계가 다 그 올림픽을 보게 그것 중계해서 정말 감동받게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리우올림픽에 아베가 딱단상에 올라가는 장면까지도 거기에는 있었어요. 벌써 그게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다 돼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계획표가 있느냐, 간트차트 가 있냐, 계획표를 하나하나 다 적느냐, 그런 것 도 좀 꼭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명장 출신이기 때문에 안 전입니다, 안전.

기획예산처 심의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총장님, 새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올림픽 가면 올림픽 구경만 합니까? 옆에 있는 동네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지. 거기 가다 보면 문재를 넘어가면 30도의경사 정도가 이렇게 있는, 굽이굽이 칡 사리 고개처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일본에는 도로에 눈이 얼마 올 건지 예상해 가지고 빙판까지 다 계산해서 거기 열선까지 넣는 거 계산 다 끝났더라고. 어떤 업체하고 예산이얼마인데 물가상승률이 얼마이고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넣었어요.

과연 우리는 예산을 깎을 거냐, 정말로 매일같이 그것을 보고 머리 맞대고 앉아서 할 거냐, 하세요. 나중에 큰 사고 나서 망신당하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염동열 위원님이 그쪽에 있는 입간판 같 은 것 도로 정리 같은 그런 것 말씀하시면서 목 이 터져라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가 잘 몰랐어 요. 올해 일본 가보고 저 알았어요. 일본에 이것 을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한일협력위원회 하러 갔는데, 제발 부탁 하나 하면…… 첫 올림픽부터 만든 것을 교과서에까지 실었다는 내용 보고 엄 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염동열 위원님이 부탁 하는 것 다 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산처하고 둘 이 맞대고 앉아 가지고 매일 논의하세요. 예산 쓴다는 게 누가 돈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깎 을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잘 해야 되잖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매일 간트차트 다 만들고 계획하고 실 시를 매일 확인하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진 행 상황표까지도.

그리고 본부장님, 부분적으로 화장실 얘기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직 까지도 화장실도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요, 여기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고요. 의논 해서 다 결정하시고요.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 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얘 기는요,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잘 잡으세 요.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알겠습니 다.

○김규환 위원 정말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아침에 종이 두 장짜리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획표 정확 하게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습 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무엇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 고 예산은 얼마쯤 더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만큼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그냥 두 장짜리 떡 하니 갖다 놓고 아침에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사무총장님, 꼭 좀 실천하시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김규환 위원** 매일 보고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여기 평창올림픽위원들 왜 있어요? 보고하세요. 그리고 협조 받으시고요.

예산심의관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만나세요.

만나세요. 의논하세요. 올림픽하고……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알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설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최도시, 강원도 그리 고 국토부의 국토청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뭔 가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것 강원도 올림픽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림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외적 으로 권위와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감은 이루 말할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 없이 구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탈 해 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없었던 빛나는 성과는 이제 우리 국민 들의 좌절감과 실망 속에서 퇴색되어 나가고 있 습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내고 이루어 낸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 떻게든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 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다른 계기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1년 4개월 후에 있을 바로 세계사의 세계민 국민들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그 계기가 되어야 됩니 다. 반드시 세계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대한 민국의 평창동계올림픽이 과거 역대 어떠한 올림 픽보다도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라고 하는 그 런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 국민적인 자부심 과 용기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국 민들 가슴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절박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 돈으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의 미가 담겨 있다……

국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조직위뿐만 아니라 기재부·문화체육부·강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성공의 의미에다가 이것을 반드시 덧붙여야 된 다, 그러기 위해서 여태껏 해 왔던 인식과 발상 전부 버리십시오. 지상명령입니다, 평창동계올림 픽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기재부·문체부·강원도·조직위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보세요, 무엇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특히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 세계사적인 이런 축제로 성공하는 데 문화관광 ICT에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뭐가 있는지.

특히 강원도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약 1200억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마찬가 지로 이것은 최소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 실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같이 상 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동안 칼자루를 쥐고 있던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인식과 발상 전환하십시오. 여 태껏 봤던 것하고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1년 반동안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이그 계기가 되어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특히 기재부 가시면 장관, 차관께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다 이런 절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시고요. 박완주 위원님, 질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박완주 위원 예.

○**위원장 황영철**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든 이 평창올림픽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이제 남은 기간이 약 450여 일, 456일 정도 남았 는데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조직위원장도 두 번이나 바뀌어, 그다음에 해당 장관들도 그동안 에 몇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수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조직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각 부처에서는 이 평창올림픽에 이와 같은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텁지 못한 선수층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종목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 부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홍보 부족이다,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일본에다녀오신 분들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지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선 큰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창조직위에서 만들어 왔는데 차은택 예산과 최순실 예산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것 왜 그냥 이렇게 놔두십니까? 미디어 파사드나 K-컬처 이런 것은 다 차은택·최순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빨리 세우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문체부로 들어가는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이빨리 없어지지 않으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별도로 다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이와 같은 올림픽 종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화올림픽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 그 문화올림픽을 어떠 한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당장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올림픽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 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어 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될지……

또 어제인가도 교문위에 평창올림픽 위원들 몇 분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그냥 오셔 가지고 '그냥 대강 지원해 주세요' 그게 지 금 안 됩니다. 예산이 이제 올해 내년 예산 편성 하는 것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 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에 얼마. 어떤 예산에 얼마, 그렇게 나오셨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그냥 대외기관의 문화프 로그램 운영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통문화, K-pop 등 문화공연, 한류전시 체험 이게 문화의 전부 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창올림픽에 오시 는 분들이 주로 유럽에서 많이들 오신다 그랬습 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템플문화 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문화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좋아하 는 것이 역시 요즘 얘기하는 사찰음식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포 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지금 여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기가 이를 데 없어서 지금 급히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일 금요일 날 교문위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이 일을 정말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재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데 기재부에서 아무거나 그냥 툭툭 잘라버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최순실·차은택 예산은 전부 다 벌떼같이 주고 말이지요. 그게 정말 말이 되 는 겁니까, 기재부?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정부 재정을 담당하는 데가 결국 기재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정부가 그동안 약속했던 것은 정말 차 질 없이 저희들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

○李恩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 까? 그러니까 그 나간 예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사후관리도 안 하고 그냥 달라 그러니까 줘 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할 것은 예산 배정 하나 도 안 하고.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문화 쪽 관련해서는 문화재정 2%라는 국정과제가 있고 요, 거기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이나 정 책들이 수립된 게 많습니다. 그 정책 우선으로 예산을 많이 배분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 습니다.

○李恩宰 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 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은재 위원님은 사실상 동계 올림픽 관련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방위원회의 예결소위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 있을 교문위 상임위원회 예 산소위에서 큰 역할을 또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 실상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문위 예산소위 위원님 들한테 어떤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업 을 진행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는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소위 위원님들한테 건성으 로 예산 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강원도 관계자 분들 나와 계시 는데 지금 교문위 소위 위원님들한테 예산과 관 련돼서 이게 뭐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항목별로 잘 설명해 주시고 적 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알겠습니 다.

○위원장 황영철 답답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주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다음에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 다.

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총장님, 평창동계올림

픽이 국가사업입니까, 강원도 도사업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국가사업입니다.

-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 ○박완주 위원 예산심의관님, 전체 예산에 국가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올림픽 치르는데?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정부예산은 한 400조 7000억 정도 되고요, 강원도 전체로 가고 있는 것은 지금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13조이상 들고 있다고……
-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총장님한테 다시, 상당 부분 기업으로부터 후 원을 약정 받아서 치러야 되잖아요, 일명 스폰서.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습니다.
- ○**박완주 위원** 잘 되고 있나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지금 저희가······
- ○박완주 위원 짧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 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지금 현재까지는 계 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러면 어저께 뭐 언론사에서 보도된 후원 약정을 연기하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연기됐다라고 하는 보도는 허위입니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완주 위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스폰서 내지는 국내 기업들 후원하신다라는 게 하는 일정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어려움이 다소 있습 니다.
-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저희가 스폰서 를 정할 때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오늘 이 위원회에 와서 국가가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의지가 별 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세요, 장관 안 나오셨지요? 기재부 차관이야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렇 게 의지 없이 하시면서, 조직위원회가 더 분발해 야 되는 것 아닌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습니다.
- ○박완주 위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최근 최순실 그림자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엄습 을 했습니다.

총장님,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작년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러면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이 올 5월에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퇴 권고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신 적 있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본 적 있습니다.
- ○**박완주 위원** 사실인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저희는 5월 3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조양호 전임 위원장께서 사의 표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지시를 받아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런데 사의 표명한 이유는 밝히 셨나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때 전임 위원장께 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긴급한 그룹 내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서 경영에 복귀한다는 말씀 을 주셨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나오신 체육 정책실장님, 사의 표명을 조양호 전 위원장이 뭐 라고 하시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지금 총 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들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기사에 난 이 A분, '조 회장은 지난 5월 2일 김 장관으로부터 오전 7시 모 호텔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음. 다짜고짜 '이 만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통보했다고 함. 조 회장님이 '이유가 뭡니까?' 묻자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은 이튿날인 3 일 전격 사퇴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사퇴 6시간 만에 이희범 전 산업부장관을 후임했다', 이 기사 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 니까?

실장님,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답변 못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두 분이······ ○**박완주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심각한 우리 조직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두 분이 만나셔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 다.
- ○**박완주 위원** 만난 것은 맞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최순실 씨가 만든 더블루K에, 미르재단에 조 회장이 10억 원밖에 기부하지 않고 K스포츠재단 에는 기부 거부했기 때문에 해임됐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검 에서 밝혀질 이야기인데,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제대로 되 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후원 금도 지금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걷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가예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려스 럽습니다.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때 가서 월 급 또박또박 받으실 게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 게....

어떻게 일개 민간인 강남아줌마 한마디에 조직 위원장이 왔다 갔다…… 이것은 국가사업뿐만 아 니라 세계적인 행사 아닌가요?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요? 참혹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 올림 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 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 활 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대비 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 ○**박완주 위원** 기재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금 전에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비정상적인 예산을 그렇게 내려 줄 수 있나 요? 위원님들 1억, 2억 증액하려면 그렇게 힘든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제가 생각 하기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문체부의 정책을 중점으로 해서 배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에 집행상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 ○**박완주 위원** 책임 없다?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 ○**박완주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추가질 의 안 할 테니까요.

문체부 실장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15년도에 1억 9900만 원, 16 년도에 4억 7700만 원, 비종목단체 유일하게 국 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금 감사 중 이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특별 감사 진행 중입니다.
- ○**박완주 위원** 누구 지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드렸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한 국가대표 스타들이 어린이 꿈나무들, 영재들을 육성한다는 그 사업 취지는 저희는 참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출발시 에는요.
- ○박완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취지가 좋으면 2, 3일이라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모든……

사단법인 허가가 쉽지 않은데 참 희한하게 문 체부에서는 미르도 그렇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 터도 그렇고 취지만 좋으면 그렇게 빨리해 주고 예산도 밀어줍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도 민 간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됐다는……
- ○박완주 위원 책임이 없다, 문체부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참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박완주 위원** 회수하셔지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법령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〇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 입니다.

사회예산국장님, 이번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최순실 예산'이라는 용어 들어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권성동 위원 최순실이하고 차은택이가 서로 짜 가지고 문화예산, 스포츠예산 말아먹으려고 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최순실 예산 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다 삭감을 했잖아 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권성동 위원 문화예산은 사회국장 담당이 아 닌가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맞습니다.
- **○권성동 위원** 맞잖아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소위에서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성동 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지금 자진 삭감하는 부분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문화도 사회국장 담당이고, 올림픽도 사회국장 담당이잖아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맞습니다.
- ○권성동 위원 그런데 올림픽 예산이 부족하다 고 강원도에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림픽이 강

원도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했고 약속했던 것은 충분히 차질 없이 진짜 지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 도에서 사업의 성격이 국가적 성격의 사업과 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최순실 관련된, 차은택 관련된 문화사업 예산 아마 다 삭감될 거예요, 또 찾아서 삭감시켜야 되고. 그러면그 예산을 지금은 정부재정이 어려워서 올림픽예산 지원을 제대로 못 했다 하는데 그것을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다 돌리세요. 그래서 기왕 치르는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야지 지난 아시안게임처럼 치러서 되겠습니까?

특히 올림픽 경관 개선 및 문화거리 조성,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오는데 뭔가 좀 산뜻한 도시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강릉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매년 200억씩 기채를 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재정자립도도 20% 내외인데.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올림픽 붐 조성하는데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마 예결 위 소위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 합니다.
- ○권성동 위원 논의되어야 되는데 담당 실무국 장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남의 얘 기하듯이 해요, 도대체.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성동 위원 본인의 의지가 어떠냐 이것이지, 본인의 생각이.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지금 기재부를 대표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올림픽에는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성동 위원 너무 원칙 원칙만 따지면 되겠어 요? 원칙 따지는데 최순실 예산이 나오고 차은택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나도 기재부의 예산편성 원칙, 기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인 필요성이 클 경우 또 국민들이 원할 경우 또 시급할 경우에는 다 원칙 에도 예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에서 특별히 관심 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권성동 위원** 체육실장,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장 존치하는 것이 최순실 때문에 존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전혀 아 닙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당초에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강릉시, 강원도 그리고 스포츠계 에서 기 투자한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 보자 이런 논의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 ○**권성동 위원** 도민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문체부 방침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그렇습니 다.
- ○**권성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순실하고 상관 없다, 제가 강릉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담보를 합 니다.

그런데 아직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 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재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하는 부분 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스피드스케이트 장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마련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빙상 관련 연맹이나 단체들이 강릉 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전국체전·동계체전 같 은 부분을 강릉에서 집중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국제대회를 또 강릉 쪽으로 유치하고 이런저런 간접적인 지원책은 국가에서 충분히 신경을 쓰겠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성동 위원 아니,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쓰면 되지. 국가대표 연습장으로 써서 태릉선수촌에 편입을 시키든가 동계훈련에 쓰면 될 것 아니에 <u>Ω</u>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고 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튼튼하게 짜도

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처음에 철거하겠다 그랬다 가 정부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사후 활용 방안도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 못 질 거면, 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존치 결정을 하 냐고, 철거하는 게 낫지.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철거한다 그랬을 때 강 릉이나 강원도에서 운영비가 감당이 안 돼. 감당 이 안 돼서 나는 철거하는 데 찬성해 준 사람이 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정책을 바꿨더라고요. 바꿨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 님,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습니 다.

○**위원장 황영철**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할 때가 아니라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내리시고요. 다음 회 의 때는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 한 입장 좀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영철** 다음은 김관영 위원님 질의 순 서입니다.

다음에는 민홍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국민의당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이 정말 국가적 과제이고 제대로 잘 치러져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이 있습 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에 관해서 내년도 계획을 보 고받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의 논하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주요 현안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주 요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염동열 의원님의 여러 안들도 잘 통과되어서 동계올림픽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평창동계올림픽 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 문 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직간접으로 개입이 된 것으로 많은 의혹 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최순실 예산을 통으로 삭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 주체와용역 수행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진상 규명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체육정책실장님.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김관영 위원** 조양호 전 조직위원장 사임할 때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저 말씀입니까?
- ○김관영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관광 정책실장이었습니다.
- ○김관영 위원 체육관광정책실장입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김관영 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그 사이 에 약간 직제 개편이 있어서……
- ○김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체육, 지금 여러 신문 보도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김종 차관이 직접 만 나 가지고…… 아니, 김종덕 장관이 만나 가지고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지 고 있어요.

당시에 실장님으로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진행 상황을?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아니요. 두 분이 만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 ○김관영 위원 체육정책실장은 지금 평창동계올 림픽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람 인데, 특히 조직위원장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 니까? 조직위원장이 교체가 된다, 그 자리를 왜 교체해야 되는지 당시에 궁금하고 알았을 것 아 니에요.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저희도 조

양호 위원장님 나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 ○김관영 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김관영 위원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말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전체적으로 동원이 됐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문화체육부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 차관, 실장, 고위직의 줏대 없는 의사결정 또 줄서기 이런 것으로 이게 다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구호 개·폐회식 연출감독 사퇴 또 더블루K 문제 또 송성각한국콘텐츠진흥원장 관계사인 머큐리포스트가 빙상장 LED 프로젝트 업체로 선정된 것 또 삼성의계열사인 제일기획이 개·폐회식 운영사로 선정되고 롯데 계열 대홍기획이 성화 봉송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특히 선정될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한직후에 이게 다 결정이 됐어요.

설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다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 ○김관영 위원 어떻든지 사무총장님이 전체 이일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소위 오해받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다 추려보고 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또 사업자가 위에서 압력에의해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능력 없는 사업자가선정이 돼서 부실한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 ○**김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이 사업자 선정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것은 사업자를 이렇게 변경해서 제대로 정상적으 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필요합니다'라 고 솔직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 떻게 진행하겠다는 계획들을 제대로 세워서 여기 평창특위에 보고도 하고 국회와 기재부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꼭 밟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 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이제 얼마 남았지요? 한 1년 3개월 남았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오늘 정확하게 456일 남았습니다.

○민홍철 위원 1년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완벽하 게 준비가 되어도 모자랄 판인데 느닷없이 최순 실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차질이 있 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이렇게 발생되는 데 대해 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 별위원회에 주무 장관인 문체부장관께서 직접 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당부의 말씀 을 부탁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세 번 정도 회의에 오는데 한 번도 주무 장관의 참석을 못 봤습니다.

이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과연 잘 치러낼 수 있을까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기획재정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 는 좀 더 기획재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조직위원회 차원이나 강원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18%인 상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벌써 지 방비 1조, 거의 2조를 투입을 했는데 이래 가지 고 과연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강원도에서 지원을 요구하 고 있는 1200억, 기재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적극 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증액하고 요청을 해 도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 잖아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1200억 추가 지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의 의지를 말씀 을 해 주세요.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사업의 내 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다 못 봤는데 사업을 보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흩어져 있는, 국토 위든 교문위든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별로 아마 다 증액이나 추가 반영돼 가지고 올라가 있을 거 예요. 예결위에. 그러면 예결위에서 기재부의 의 지가 반영돼 줘야만이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돼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성공적인 올림 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정말 기재부의 의지를 이번에 보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최순실 예산·사업 이 부 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반 적으로 검토를 해서 뺄 것은 빼고 다시 사업은 할 것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살펴보니까 290억 6000 중에서 일종의 최순실 예 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제가 뽑아보니까 한 107억 정도 되더라고요,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 산 추정되는 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을 포기한 것 은 아니지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실장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기재부에서도 의견을 밝혔지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편성을 했는데 다만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개입이 집 행단계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최 순실 사업 ·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다만 저 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죄가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정말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 주요 도시 순회 한국예술 특집 행사 이것은 명칭은 바꾸더라도 일종의 동계올림픽의 홍보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아주 중 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한중일 올림픽 연속 개최 계기 교류 사업 이 부분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주변국에 대한 홍보 사업으로서 충분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K-pop 행사 관련 홍보라든지 또 빙판 디스플레이 운영, 갈라쇼 이런 것은 올 림픽의 고유 홍보 행사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 겠냐……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개별 사업을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 못 드리지만 출발단계에서 사익이 지나치게 개입했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다만 사업 주체나 용역사업 수행자들의 공정한 선정을 전제로 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살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순실의 그림자는 철저히 지우 되 반드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위원 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憲昇 위원 예.

○**위원장 황영철**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부산진구을 출신 새누리당 이헌 승 위원입니다.

정말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올림픽을 앞두고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에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하되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는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특위 위원이기도 하지 만 국토부에서 올림픽 관련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게 있는데, 기재부 심의관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李憲昇 위원** 국토부에서 통과해서 올라 온 평 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지원 18억 원 예산이 더 증액 요청이 왔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결위 소위에서 지금은 삭감안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증액안 심의를 할 건데 현재로서 제가 그 사업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이것은 증액이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그러니까 증액 때 예결위에서 논의를……

○李憲昇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정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꼭 지원해 달라는 그 말씀이고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李惠昇 위원 그다음에 또 염동열 위원님께서 주신 건데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하는 것도 예산이 10억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겠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말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4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 상황을 보면 아직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국제빙상경기연맹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습니다.

○李惠昇 위원 이게 사실 시설이나 빙질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합으로 테스트 이벤트로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빙상연맹에서는 2월 국제경기 하기 전에 1월 국내경기를 올림픽이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태릉에서 열기로 했지요?

사무총장님, 아직 들여오지 않은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혹시 아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이 내용은 제가 자 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빙상경기장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패딩 시스템이라든 지 또 경기할 때 계측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측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李嶌昇 위원 그렇지요, 기록 계측장비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설치될 예정 입니까, 내년 2월에 가능하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저희는 2월 행사 이 전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대안 플랜B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플랜B가 중 요한 게 아니고 당초 2월에 세계대회를 테스트 이벤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 1월에 국내대회를 거기서 개최를 해 가지고 문제 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2월에 국제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장비를 도입하 자마자 바로 국제경기를 강릉에서 해야 되거든 요.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없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챙겨보도록 하겠습 니다.

○李憲昇 위원 그다음에 홍보 대책, 제가 예산 서 보니까 12년부터 올해까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비 133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도 국민들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도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데 다음 달 하고 당장 내년 2월에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가 있고 또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가 있는데 이것 예매율이, 지금 표가 얼마나 팔 렸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지금 저희가 예매율 은 그 두 종목에 대해서만 입장료를 소액으로 받 는 것으로…… 표 받는 것도 테스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은 구매율이 좌석 등급마다 다릅니다 마는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테스트 이벤트 관련해서 저희가 보다 폭 넓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저희가 국제대행 홍보 이 것도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홍보 채 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李憲昇 위원 지난주 언론에 보니까 예매율이 8%. 14%밖에 되지 않아요. 관심도가 너무 낮은 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거기에서 많이 올라 갔습니다.

○李憲昇 위원 올림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시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철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말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동계시 즌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홍보비 예산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220억 요구 를 했습니까?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李憲昇 위원 정말 올해밖에 없는데 우리 기재 부에서도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 지 않았으니까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 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의관님, 홍보비 부분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예결위 에 가서 상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예결위에 가서 그것 잘 해 주시 고요.

지금 관광인프라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관광시장 종사자 들 친절교육, 외국어교육 이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자원봉사자들 전문성 확보 대책, 사무총 장님 말씀해 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저희가 자원봉사자 가 총 2만 2400명이 필요한데 신청 들어온 것은 한 9만 명 정도 들어왔고요. 실제 최종 정리되는 것은 한 6만 명 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많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종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한 요원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들어 왔습니다, 상중하로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자체적인 교육과 또 현장 필드교육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중간에 이탈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명심하겠습니다.

- ○李惠昇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철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들 질의만 남았습니다.

이동섭 간사님, 송기헌 간사님, 염동열 간사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존경하는 염동열 간사님, 김규환 위원님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저는 성공한 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관계자분들이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 ○**이동섭 위원**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지요?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초기에는 공사가 상 당히 지연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연 공기 만회하고요,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 획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동섭 위원** 최순실 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업 무협약을 맺은 누슬리에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지연된 것 아닙니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왜냐하면……
- **○이동섭 위원** 3300억이라는 국가예산이 들어가

는 공사가 결국은 최순실 씨 일당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저희가 그 사업 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누슬리····· 말씀하신 그 업체 계약이 저희가 이전에 벌써 설계·시공 일괄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 ○**이동섭 위원** 실장님.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이동섭 위원 조양호 전 위원장 이분이 말이지 요, 기업가이고 저는 상당한 애국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꼼꼼히 1~2억부터 결재하면서 예산이 새는 것을 막는 사람을 장차관이 공모해서 해고시켰다면, 이게 도둑질하는 것을 공모하는 것을 해고시켰다면……

최순실 일당이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국가 돈을 갖다가? 일당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형법 제330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를 장차관이 위원장을 해고시켰다면 공동정범이에요, 이게요. 장차관이 이따위 짓을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되겠어요? 똑같은, 도둑질하는 것을 공모하는 것 아닙니까?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장차관들이 이게 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오늘 장관이 왔으면 좀 여러 가지 질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미안한데, 장관한테 전해 주세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유일하게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리우올 림픽을 다녀왔습니다. 또 패럴림픽도 다녀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8일 동안 잠을 자고 세수도 못하 면서 다녀왔어요, 일부러.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때 제가 왜 갔겠습니까?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갔 습니다, 체육 전문가니까.

저는 얼마나 놀랐냐 하면 폐회식 때 보니까요, 아베 수상 우리가 욕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본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마리오 코스프레 차림으로 깜짝 등장을 합니다, 국가 원수가. 전 세계인 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져야만 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올림픽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과 최순실이 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관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올림픽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 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문제 보니까, 동영상 그게 뭡니까, 그게? 유치하고 조잡하고 추접하고 코미디 같은 이런, 세상에……

문화는요 우리나라의 국격입니다. 평창올림픽 을 홍보하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나는 안 보고 싶더라고.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김규환 위원님하 고 일본에 가서 체육청 방문하고…… 우리가 체 육부, 문체부에서 할 일을 다 위원들이 하고 왔 어요, 이번에 가서.

가서 보니까 배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교하 고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패럴림픽 배지 하고 올림픽 배지하고 같이 2개를 나란히 했는데 우리 배지하고 너무…… 우리 배지 창피해서 주 지를 못했어요. 그게 뭡니까, 조잡하게? 멕기 (めっき, 鍍金)도 벗겨지고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나 중의원ㆍ참의원들 이요 배지 밑에다가 말하자면 2020년 올림픽 배 지를 달고 다닙니다, 전부 다. 장관들이 다 달아 요, 장차관, 공무원들이.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 또 실어 가지고 말이지요.

우리 평창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문가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전문가들이 해야지.

내가 그래서 물어 봤어요, '체육청장이 어떤 사 람이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거예요, 체 육청장을.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황영철 예.
- ○**이동섭 위원**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와 가지고 좀 다릅니다.

2분만 주십시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느꼈는데요.

우리 김규환 위원님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나 는 놀랐어요. 비밀문서를 가져온 거예요.

안 줍니다. 정부 문서를 줍니까?

실장님, 정부 문서, 문서나 파일 줄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달라 하면?

우리하고 경쟁국입니다. 내가 그것도 물어 봤 어요.

예산실장님.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동섭 위원** 그것도 물어봤어요, 가라데 태권 도도 물어 봤어요. 태권도 잡으려고 예산 많이 주더라고. 그것 제대로 인식하세요.

평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 냥 체육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 린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현 대통령이 개회식 에 참여하고 폐회식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참여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상태에서 아베 같은 그 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도 될까 말까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 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심의관님.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동섭 위원** 이게요 예산은 정치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로 하면 안 됩니다.

평창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아직 평창 은 못 가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산도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면 안 돼요. 그것 힘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한번 가보라니까. 무주태권도공원에도 한번 가보 고 평창도 가보고 나서 예산을 좀 배분하세요.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안 돼.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어떤 데는 1 조 원 가져가고 힘없는 국회의원들은 몇 억 가져 가고 이게 되겠어요. 국가균형발전에?

장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그러더라고.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동섭 위원** 좋은 말 할 때……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동섭 위원** 심지어 도둑놈들만 많이 있어 가 지고 도둑질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되겠냐고요, 이게요? 제대로 좀 배분하세요, 심의관님.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알겠습

니다.

○**이동섭 위원** 장관이 왔으면 좀 여러 가지 얘 기를 하고 싶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서요 정말 우리 평창올림픽 성공시킵 시다. 우리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겁니다.

잠깐만 20초씩만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 에 대해서.

○위원장 황영철 답변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사항이니까요, 충분히 듣고 나중에 마무 리……

- ○이동섭 위원 '예'로만 얘기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명심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위원님 말씀 일 하는 데 적용하겠습니다.

- **○이동섭 위원** 심의관님.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섭 위원** 심의관님, 지금 목소리가 약해. 더 세게 해 보세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섭 위원**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 요, 그렇지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 ○**이동섭 위원** 제일 크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 게 하세요.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섭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동섭 간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기헌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오늘 문체부장관이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쉽지 않다 생각을했지만 오늘 그래도 꼭 우리 평창특위를 개최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산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었

습니다. 아시겠지만 올림픽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굳이 오늘 평창특위를 개최하고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인 만큼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니까, 실제 올림픽 준비하는 현장에서 보니까, 물론 예 산심의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예산 원칙도 있 고 또 예산 관련 부처가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 지 원칙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르는 것이 있다는 것 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심의관님께서는 예산을 전담하시기 때문에 거기 자체의 입장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권성동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주변 진입도로 관련된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중화장실 개선. 심의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한테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이루어질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염동열 위원님도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 현장에서 진입도로 같은 것을 봐 가지고 경관이 그래서는 정말 동계올림픽과 맞지 않는 그런 상 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들도 예산원칙을 다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심의관님께서 이런 점을 특별히 참작 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비슷한 건데요. 아까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가셨는데 사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사찰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올림픽 중에서 하나가 정말 사찰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독실한기독교 신자입니다. 사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하는 이런 형식의 문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지금 개별적인 예산 같은 경우는 오대산의 자 연명상마을 조성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들 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산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반적 으로 문화올림픽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 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런 점을 심의관님께서 참작을, 꼭 고려해 주시기 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체육정책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스폰서 십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 조항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 습니다.

○송기헌 위원 여태까지, 2016년도까지 한 것이 458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애초 계획은 2018년도까지 1424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까지는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에 크게 모자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계올림픽 지원에 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해서 수익금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위원님, 현재까지 저희가 약속한 부분은 지켰습니다. 다 만 조직위에서도 추가 수요가 있고 또 마케팅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 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송기헌 위원** 최대한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요 청드리고요.

심의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사실 경기

장이나 진입도로 같은 데는 다른 데 30%, 50% 하는데 75%, 70% 이렇게 지원 기준도 높이고 국 가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올림픽특 구나 이런 데 관련된 경관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강원도에서 제시 하시는 것은 조금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위원님 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 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송기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 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여형구 총장님 그리고 김재원 실장님, 안일환 국장님, 노재수 본부장님께 공동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과 김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일본에서 보시고 저도 며칠 전에 내용을 듣 고 바로 올림픽을 통해서 단순한 올림픽이 아니 라 올림픽 축제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 이외에 대 한민국을 어떻게 세계 속에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경쟁력을 키우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습니 다.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번도 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을 좀 더 다양하게 창조적 올 림픽으로 하자. 산업 분야, 스포츠 분야, 문화 분 야, 관광 분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식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까지도 클린시킬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한 계 획을 세워 달라. 그리고 우리 조직위원회도 마찬 가지로 문화·환경·평화 그리고 ICT올림픽까지 여기에 대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와라.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조직위에 갔었을 때 일 부 나왔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볼 수가 없어 요. 그리고 김재원 실장님에게도 문체부에 얼마 나 얘기했습니까? 총체적으로 여기를 총괄할 수 있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짚었으 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위 · 강원도 · 개최지가 서 로 삐거덕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조합을 이뤘으면 좋겠다, 조율해 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재수 단장님 계십니다만 강원도도 올 림픽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리고 강원도를 자 연의 가치와 올림픽의 가치를 어떻게 융합시켜서 세계 속에 내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5000억 정도 요청을 해서 강원도가 자연의 가치와 관광의 가치를 세계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플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장관들이 아닌 실무자, 책임자들이 오셔서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일확 국장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염동열 위원 저는 올림픽을 예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와 올림픽이 갖고 있는 가치와 올림픽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을림픽이 갖고 있는 가치를 융합하고 그것을 잘 엮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올림픽 최대의 효율적 성과를 올리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성공 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올림픽 레거시(legacy)와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인드로 안 국장님도 올림픽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비록 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에서 하나를 더 보태서 속 물은 어느 정도 만들어 왔습니다만 포장지 자체가 허접하면 전체 물건이 부실하게 보입니다. 포장지 잘 싸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는 성공된 올림픽이다 하는 쪽에,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시고 새롭게 들여다봐 주세요.

들여다봐 주시고, 각론 쪽으로 제가 가게 되면, 지금 최순실로 인해서 개·폐회식장 문제, 마스코트 문제, 강릉 빙상경기장 문제 그리고 동계스 포츠영재 문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원 실장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스케이트장은 권성동 위원이말씀을 해 주셨고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제가실상은 유찰이 두 번 됐었을 때 대림산업 관계자를 면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이 토목을 잘활용하면 계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사후에이것은 문화예술 그리고 K-pop 공연장으로 만들려면 오각형이 좋겠다라고 제가 대림에다 제의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사비도 줄이

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 얘기가 맞는지 한 번 더 면밀히 살피셔서 확인해주시고요.

최순실로 인해서 지금 스폰서가 좀 늦어지고 있지요? 계약이 늦어졌지요? 9700억에서, 9400억 에서 87%, 그중에서 2개 정도가 계약을 해야 되 는데 12월로 연기를 해 버렸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염동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불안요소가 있으면 동계특위한테 부탁을 하셔서 같이 기업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염동열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공공기업 한 푼 도 못 받았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것은 바로……

안 국장님, 공공기관이 출연을 하게 되면 실질 적으로 페널티를 받아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재 무제표에 이것이 비용 손실로 잡혀서.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으니까 공공기업이 내지 않고 있어 요. 단순히 공공기업이……

미르나 K스포츠에 낸 돈하고 달라요. 이것은 공공기업이 그것을 냄으로 인해서 거기 스폰서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브랜드 효과또 국가사업에 동참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경영지표에 사회공헌 항목이 있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염동열 위원** 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우리 공공 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풀어서 빨리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 공기업의 스폰서도 받아서 실제로 목표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1조 2000억에서 지금 4조가 걷혔잖아요. 거의 300% 이상 걷혔잖아요. 이것은 그 기업의 가치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 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안 국장님.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릴 게요.

도시미관, 숙박, 관광,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활 이런 모습들은 세계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미 미국의 NBC가 아마 올림픽대회는 한 2000명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게요.

2000명 정도 와서 취재를 합니다만 464개의 채 널이 3만 8000시간을 세계인들에게 보여 주는 거 예요. 올림픽이 뭡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나라를 가장 노출시킬 수 있는, 세계인들의 관심 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 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 레 거시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향토 적 가치, 관광적 가치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포장지를 싸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손님이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지속발전 가능한 이런 플랜이, 그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우리가 대전엑스포라든가 여수엑스포라든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 ○기획재정부사회예산심의관 안일환 예, 알겠습 니다.
- **○염동열 위원** 그래서 김재원 실장님, 최순실 예산 이것 1000억 깎으면 지속발전 가능한 것 이 … 그리고 올림픽 레거시와 그 지역의 강원

도의 관광과 강원도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 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 ○**염동열 위원**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 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큰돈 들어가지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산 과 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염동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강원도가 요청한 예 산들 중에서 상임위 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 산들이 상당히 있지요?

-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그렇습니 다.
- ○위원장 황영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소속돼 있는 안행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교문위 회의가 아직 예결 소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잘해야 되 겠지요?
-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그렇습니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교문위 심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철 예.

그다음에 국토위 관련돼서 국토위에 요청한 예 산들은 거의 안 됐어요, 그렇지요?

-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국토위는 기 존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 중에 일부는 반영 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또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영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경기장 제설인프라 구축 36억 원, 강릉 도시 경관 개선사업 120억 원, 빙상경기장 주변 녹지 공간 26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 20억 원, 문화올 림픽거리 평창 250억 원, 올림픽 경관·도로 20 억 원, 삽교IC 연결되는 데 10억, 올림픽 수송운 영구간 경관조성사업 96억 원 전부 미반영이에 요. 이게 맞아요?
-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예, 국토위에

서는 미반영됐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저희 방으로 강원도에서 가져온 자료에는 이게 반영된 것으로 저한테 자료 가져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헌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해도 이 예산항목이 국토위 사업인지 아닌지조차도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해 달라 그러면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일환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기재부가 사업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파악해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토위 상임위에서조차 '이 사업은 국토위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서 해 달라고 그러면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제가보기에.

안일환 국장님,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토위에서는 이것은 국토위 소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정 못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됐다고 그래요. 봤을때 다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상임위에 가서 배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 심의는 천상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통으로 다루 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전체 예산과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예산을 어느 부처 어느 비목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 금 다시 한번 전체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요. 그렇지요, 체육실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철 조직위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다리 건너 있습 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이것?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그렇습니다. 저 희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돼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분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예산 절대 예결소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 정확히 살펴보시고 반드시 챙겨서 논의가 이루어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너무나 아쉽게도 문체부장 관과 기재부장관과 조직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 는데요. 다음에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다시 한번 꼭 특위를 개최해서 책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 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 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염려의 말씀, 걱정의 말씀은 결국 성공 개최를 위한 염원과 열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홍철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위원장 황영철 발언 기회요?

○민홍철 위원 조금만……

○**위원장 황영철**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국토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저도 평창지원특위 위원이고 또 염동열 간사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항목이 불분명하고 지방에서, 강원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을 국토위 중앙정부로 올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부에서 아예 동의를 안 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 부에서 어떤 의사의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의지를 좀 보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 부분 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기재부의 의지를 보여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감사합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주재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회의가 있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으셨지 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 회의에서는 저희 가 심의해서 의결한 안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전 부처가 합심해서 평창동 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정부가 뭘 지원할 것인지 조목조목 따져서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모여서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 렇게 회의하려고 모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위원장님, 그때 저 희가 상당한 내용을 준비해서 강원도하고 조직위 하고 전부 현안 문제를 건의했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국무총리 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막바지 예산심의 과정이 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 라고요.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그런 의견을 강하 게 요구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오늘 여러 가지로 불비한 회의 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고 회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서 위원님들 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3층에 있는 의원식당에서 조촐하게 점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강원도 •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 여 러분들, 보좌진과 전문위원님들, 속기사 여러분 들,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고 용 진 권 성 동 김 관 영 김 규 환 김 기 선 민 병 두 민홍철 박완주 송 기 헌 염동열 이동섭 이은재 이 찬 열 이 철 규 이 헌 승 최 명 길 황 영 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재	룡
전	문	위	원	박	용	수
젉	문	위	워	김	거	Ģ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2 차 관	송	언	석
사회예산심의관	안	일	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김	재	원
체 육 협 력 관	김	영	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 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여	형	구
강 원 도 동계올림픽본부장	노	재	수

【보고사항】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	변경전	변경후	사유	연월일
이해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 단체 가입	2016. 9.30.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교섭 단체 제적	2016. 10.24.